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연극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18. 4. 3.(화) 19:00~22:00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10.(화) 19:00~22:00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량원, 고연옥, 윤시중, 장성희

<서류 심의>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 연극분야에는 연출부문 35명, 극작부문 30명으로 총 65명이 지원하여 약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자수에 비해서 활동이나 작품경력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많았고, 작품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투적인 일반론에 머무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공연을 시도하고 꾸준히 희곡을 쓰는 젊은 작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략적 경향을 보면 형식면에서 Immersive Theatre(관객참여형 공연), Verbatim Theatre(다큐멘터리 공연), 미디어사운드아트 등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내용면에서는 페미니즘, 여성성에 대한 탐구가 늘었다. 우리는 지원자들의 기존 작업들이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했고, 작품 계획에 있어서도 공연미학이나 형식, 그리고 소재면에서 우리 시대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가, 또한 현재를 포착하는 특별한 작가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가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연출분야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형식에 대한 이해와 그 형식을 통해 자신이 다루려는 주제가 어떻게 형상화될지에 대한 구체성을 가진 젊은 연출자들로 추려졌다. 극작분야의 경우 단막극 습작의 과정을 충실히 거친 안정적인 글쓰기를 하고, 동시대적 소재를 포착하여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시도하는 작가들로 선별되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연구생들 간의 공동 워크숍을 지향한다.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여 머지않아 한국연극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인터뷰심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추려진 연출 8명, 극작 8명, 총 16명의 창작자들과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작업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아카데미에서 시도하려는 차기 작품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에 대해 경청하며 젊은 창작자들의 고민과 분투를 엿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형식과 주제, 소재에 있어서의 동시대성이다. 더불어 그것이 예측가능한 일반론이 아닌 작업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나온 각성이며 질문인가였다.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연극

연출분야는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목표로하는 작업자들이 많았으나 아직은 그 형식과 주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배우들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 무대언어로 입체화를 시도하려는 작연출을 겸하는 작업자와 자신만의 특별한 주제,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창작을 계획하는 작업자들에게 주목하였다.

극작분야는 동시대적 감수성과 극적발상을 가진 작가, 그리고 연극이라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 극작가의 역할과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가진 작가에게 집중하였다. 희곡이 문학인가 연극의 부분인가의 논쟁이 지속되는 한 극작가로서 어떤 자세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극작의 방향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의 작업자들을 선발해야 하는 아쉬움이 컸다. 젊은 창작자들을 도약시키는 본 지원제도가 보다 튼튼하게 자리잡기를 바란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연극분야 선발 심의위원 일동